

호주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정책의 변화

호주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준비 서비스 및 노동시장 훈련을 강화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실업 청년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과 일반 청년을 위한 정책의 두 트랙 전략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정책 실험이 현재 진행 중이다.

들어가며

호주는 청년층의 학업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대한 청년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다. 교육과 구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수당지급과 센터링크(Centrelink)를 통한 구직서비스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직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school to work transition)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학업 또는 직업훈련 중인 청년(16~25세)을 위한 청년수당(Youth Allowance), 21세 이상의 구직자를 위한 새출발수당(Newstart Allowance), 25세 이상의 전일제 학생 또는 도제 과정에 있는 사람을 위한 교육지원수당(Austudy)이 있다. 자산 조사와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독립 여부 등에 따라 이러한 복지수당의 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책정되며 교육 또는 도제 과정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호주의 청년 실업률(15~24세)은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도 심화되고 있다. 늘어나는 청년 실업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아 실업을 통계에서 제외되는 니트족(NET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증가이다. 2015년 현재 니트족은 36만 명에 이른다. 늘어나는 청년 실업자와 니트족은 정부의 복지 재정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적절한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의 성장 둔화와 국가의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용과 성장을 위한 국가 아젠다에 청년 정책을 포함해 예산안을 수립하고 있다. 호주 노동부 장관 미카엘리아 캐시는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이고, 호주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 추진 의사를 천명하였다.

최근 호주의 청년 복지정책은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넘어 취업 준비 서비스 및 노동시장 훈련을 강화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추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2년간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 실업 청년을 위한 청년고용전략

호주 연방정부는 장기 실업 상태에 있거나 복지에 의존하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억 3천만 호주달러가 투입되는 청년고용전략(Youth Employment Strategy)이 2015~16 예산안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청년고용전략은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프로그램, 중학교 졸업자(10학년 의무교육 이수자)들을 위한 정책,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프로그램(Transition to Work programme)은 15~21세 니트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사회 기관들은 이들이 취업 준비 또는 도제 과정이나 트레이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며 청년 구직자를 찾는 고용주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한다.

장기실업자, 저학력자 등의 고용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3억 3천만 호주달러를 투입하는 청년고용전략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7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일자리 3단계 계획은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훈련 기회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는 청년 고용 보너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2016년 1월부터 중학교 졸업자들이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학업을 계속하거나 일을 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이 강화되었다. 중학교 졸업자들은 고등학교(12학년) 수료증이나 자격증 3(Certificate III - 직업교육 및 훈련 자격증으로 과정 이수에 12개월이 소요됨)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중학교 졸업자가 전일제 교육과정에 참여하거나 공부와 파트타임 일을 병행(주당 25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경우 15시간)하고 있지 않다면 의무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청년, 난민과 젊은 이민자, 어린아이를 둔 부모 등 취약 계층이 기술을 습득해 진학이나 취업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2016년 4월부터는 5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가 아동이 취학연령이 될 때까지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퍼어런트 넥스트(Parent Next) 프로그램을 10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교육 또는 취업의 목표를 정하고, 아동 양육과 취업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취업 준비부터 고용까지 청년 일자리 3단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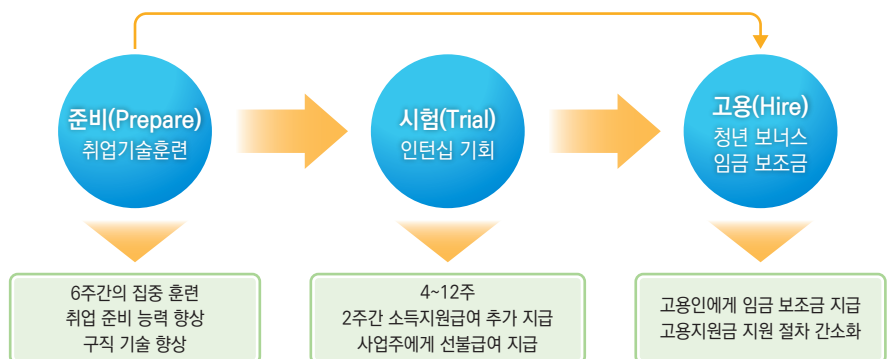
2016~17 예산안에는 17~24세 청년 구직자들이 복지 혜택에서 벗어나 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7억 5천만 호주달러를 투입하는 청년 일자리 3단계 계획(Youth Jobs PaTH[Prepare-Trial-Hire])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훈련 기회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는 청년 고용 보너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3단계 계획의 첫 번째 단계인 취업 준비 과정은 취업기술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7년 4월부터 청년 구직자들은 잡액티브(jobactive) 프로그램 등록 기간 중 6주간 취업을 위한 기술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첫 3주간은 조직환경 적응, 프레젠테이션 기법, 적절한 정보기술 등과 관련된 훈련을 통해 기초적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후 3주간은 심화 준비 과정 및 구직 기술 등에 집중하게 된다.

취업기술 훈련을 통해 취업 준비 능력을 갖춘 청년들은 인턴십을 통해 업무 경험을 쌓게 된다. 지난 6개월간 구직 서비스를 받았거나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4년간 12만 개의 인턴십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구직자들과 사업체는 고용서비스 제공자의 도움으로 인턴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하고, 구직자들은 1주일간 15~25시간씩 4~12주간 일하게 된다. 인턴십에 참여하는 동안 구직자들은 2주간 소득지원급여(income support payment)에 200 호주달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인턴을 받는 고용주는 1,000 호주달러의 선불급여(upfront payment)를 받게 되고, 청년 구직자들을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그들이 조직에 맞고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청년 일자리 3단계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청년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보너스 임금 보조금이 지급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호주 고용인들은 청년 보너스 임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들이 고용서비스에 등록된 청년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임금 보조금으로 6,500 호주달러가 지급되며, 잡액티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할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정받은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는 임금 보조금으로 최대 1만 호주달러까지 지급될 수 있다. 사업체들은 청년 구직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노동력 고용 주선(labour hire arrangement), 도제제도 또는 트레이닝과 병행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청년 일자리 3단계 계획



2016~17 예산안 발표 후 남호주자동차무역협회(The Motor Trade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는 보조금 지급이 자동차업계에서 4,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나 노동당, 녹색당, 호주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는 인턴십 기간 동안 지급되는 소득지원금여가 법정 최저임금 이하임을 지적하며 새로운 정책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최소 4 호주달러에서 최대 6.67 호주달러인데, 이는 성인의 시간당 최저임금 17.29 호주달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17세 청소년의 최저임금¹⁾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호주사회복지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도 인턴십 도입 계획이 청년 참가자들의 적절한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창업 워크숍실시와 온·오프라인 창업 정보 제공 확대, 창업장려정책 확대, 창업 조력 특별지역 운영 등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청년 창업 지원

2016년 12월부터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워크숍 실시, 온·오프라인 창업 정보 제공 확대, 창업장려정책(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NEIS) 확대, 장기 실업자가 높은 지역의 창업 조력 강화 등 네 가지의 새로운 정책이 시도된다.

청년에게 자영업이나 창업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주간의 워크숍(Exploring Being My Own Boss)을 운영한다. 워크숍 참여자는 소규모 사업체 운영 체험을 하는 인턴십(최대 12주)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워크숍뿐 아니라 셀프스타트 온라인 허브(SelfStart online hub)를 통해 창업 계획, 구체화한 창업 아이디어, 지역의 창업 지원 등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창업 관련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해 창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또 창업 지원 훈련과 멘토링 서비스, 소득 지원, 렌트비 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장려정책의 정책 대상자를 확대한다. 현재 창업장려정책 프로그램에서는 18세 이상 구직자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21개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8600개의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소규모 사업체 훈련과 멘토링(최대 52주), 소득 지원(NEIS Allowance, 최대 39주)과 렌트비 보조(최대 26주), 창업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개인 멘토링과 지원(첫 해)이다. 정부는 매년 NEIS 자리를 2,300개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은 3개 지역을 창업 조력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 창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나가며

지난 2년간 새롭게 도입된 호주의 청년 복지정책을 취약계층 지원, 취업준비부터 고용까지의 단계적 지원, 창업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호주의 정책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니트족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수당을 통해 청년의 교육과 구직기간 동안 기초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만으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장할 수 없다. 안정적인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위해서는 취업 정보와 훈련 기회 제공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일반 청년을 위한 정책의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청년 집단 중에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처럼 취약계층과 일반계층으로 나누어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취업준비부터 취업까지의 각 단계별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 다를 수 있다. 각 취업이행 단계별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다.

셋째, 국가가 인턴십 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지원금 성격의 모호성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청년층의 직무 경험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소득지원금여를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복지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줄이려면 인턴십 과정에서 지급되는 복지급여 또는 임금 문제를 정책 입안 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 Kotra. (2016). 2016 호주 조기 총선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6). Budget 2016-17 Overview. Commonwealth of Australia.
 - Department of Parliamentay Service. (2016). Social Security Legislation Amendment(Youth Jobs Path: Prepare, Trial, Hire) Bill 2016, Bills Digest no.37, 2016-17. Parliament of Australia.
 - Australian Associated Press. (2016, NOVEMBER 29). Labor rejects youth internship plan. Australian Associated Press.
 - Karp, P. (2016, May 4). Youth intern scheme will exploit workers and replace 'real jobs', say unions, the guardian.
 - Patty. A. (2016, NOVEMBER 25).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says youth jobs program 'flawed', The Sydney Morning Herald.
 - Pro Bono Australia. (2016, February 1). Transition to Work Launched Across Australia. (<https://probonoaustralia.com.au/news/2016/02/transition-work-launched-across-australia/>에서 2016. 12. 2. 인출.)
 - Australian Government 2015-2016 Budget website. (http://www.budget.gov.au/2015-16/content/glossy/sml_bus/html/sml_bus-14.htm에서 2016. 12. 2. 인출.)
 - Australian Government. (2016). Transition to Work Factsheet, Australian Government. (https://docs.employment.gov.au/system/files/doc/other/em16-0023_transition_to_work_factsheet_02.pdf에서 2016. 12. 2. 인출.)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mployment website. (<https://www.employment.gov.au/engaging-early-school-leavers>에서 2016. 12. 2. 인출.)